

미디어 환경개념의 정책적 함의

공익성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김평호*

(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기본적으로 미디어 공익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차원에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대응과 관리, 통제를 위해 확립된 이념체계, 즉 사회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미디어에 개입하는 철학적 근거로 기능해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익성 철학을 미디어 융합시대에 걸맞은 현실의 정책으로 해석·적용하기 위한 수많은 논의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시되는 구체적 정책내용이나 방안은 융합환경 이전이나 이후에도 사실상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한계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익성의 제도화 관련 논의가 대체로 미디어에 대한 도구적 관점에 기초해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는 도구, 또는 도구의 집합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 과잉’이라는 사회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융합시대에 들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연구는 공익성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과 정책논의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한계를 ‘미디어-환경’개념에 입각해 반성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미디어-환경개념은 말 그대로 미디어를 환경, 특히 ‘문화적 생태환경 체제’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에 대한 환경론적 접근은 융합시대에 요구되는 미디어 공익성 관련 정책의 철학적 기초와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한편 공익성의 실천적 기준과 주체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문화적 생태환경, 미디어 공익성, 미디어 과잉, 미디어 정책, 미디어-환경, 방통융합

1. 서론: 융합환경이 제기하는 사회적 문제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방송과 통신 분야의 전자미디어는 폭발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

* pykim@dankook.ac.kr

왔으며 미디어 융합현상은 이 같은 성장의 최근 양상이다. ‘미디어 빅뱅’(김택환, 2005) 또는 ‘미디어 매트릭스’(강내희, 2006)라는 표현이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듯이 융합시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 차원의 방송·통신과 질적으로 다른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널리 확산된 인터넷이나 이동전화 등은 물론이고, 지상파/케이블 방송의 디지털 전환, 다양한 형태의 휴대인터넷과 이동방송, IPTV, 인터넷 전화, WCDMA(HSPA) 영상전화 같은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등이 줄을 잇고 있으며, 여기에 미래의 유비쿼터스 미디어 시대까지를 고려한다면 기술발전예에 힘입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새로운 매체와 서비스들이 등장할지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또 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의 확대성장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 혼돈, 불가예측성과 같은 요소들 때문에 수(이)용자들은 물론, 정책당국자, 전문가, 학자, 해당 기업, 관련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혼란스러운 논란이 유발되고 있다(Berman et al., 2006; Braman, 2004; Galperin, 2004; Mulgan, 1991; NRC, 1996).

이처럼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정책적으로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디어 융합 문제의 핵심에는 ‘미디어 과잉(media unlimited)’이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놓여 있다(Gitlin, 2002). 물론 미디어 과잉의 판단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의 사회가 미디어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왔다(Baudrillard, 1983; Debord, 1983). 그러나 작금의 미디어 융합환경에서는 문제의 범위와 비중이 과거보다 훨씬 확대·심화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관련 사업자와 정책당국자는 물론, 수(이)용자 모두를 포괄하는 전체 미디어 행위자들에게 폭발적으로 개발/확산/수용되고 있는 미디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논의의 혼란은 무엇보다 새로운 미디어 전개상황을 질서 있게 규율할 수 있는 정책철학/정책체계/정책방안 등을 모색해보려는 시도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이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대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미디어를 둘러싼 국내외의 현실은 미디어 산업과 시장논리에 기초한 상업적/탈규제적 미디어 제도의 구축이 주류의 대응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 실제 그러한 방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여기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세계화라는 정치경제적 변화가 배후의 힘으로 작동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디어 공익성은 이러한 조류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이념체계이다. 미디어 공익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차원에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대응과 관리, 통제를 위해 확립된 가치체계, 즉 사회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미디어에 개입하는 철학적 근거로 발전되어온 것이다(최영목, 1997; Aufderheide, 1999; Napoli, 2001). 이 때문에 공익성 이념은 미디어의 진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시장주의자나 산업론자들의 일반적인 주장과 달리 미디어 포화상태를 낳고 있는 융합시대에 공익성은 오히려 더더욱 중요한 가치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철학적 가치를 현실로 제도화하는 과정과 실제의 내용에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공익성 철학을 미디어 융합시대에 걸맞은 현실의 정책으로 해석·적용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시되는 구체적 정책내용이나 방안은 융합환경 이전이나 이후에도 사실상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은 미디어 공익성과 관련된 정책과 정책논의의 영향력이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각종 미디어가 보편적으로 확대되면서 “지금처럼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이 대중적 기기/기술체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대는 없었으며, 또 지식과 정보가 국경, 계급, 대륙을 넘어 동시간대에 소통된 시대 역시 없었다”(McCarthy, 1996, p.9). 한편 미디어 과잉시대에 “일상적 삶의 리듬, 형태, 속도, 내용을 재편성하면서 동시에 규율”(Robins and Webster, 1989, p.46)하고 있는 미디어의 경향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실의 물리적 환경을 바꾸어놓는 기제가 되면서 미디어는 이제 단순한 기기의 의미를 넘어 인간 생존의 결정적 요체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향후 전개될 것으로 예견되는 유비쿼터스

미디어 시대는 이를 더욱 극명하게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과도한 일반화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미디어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 즉 제도화의 내용으로 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요약해보면 여전히 소유·진입제한, 내용규제, 공익적 저널리즘(public interest journalism)의 실천, 문화적 다양성의 확보, 공정경쟁 틀의 구축, 사회통합적 역할의 수행, 보편적 서비스 제공 등에 머물러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이 같은 정책과 제도가 가진 의미와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것이 융합환경이 배태하고 있는 미디어 과잉시대의 공익성 정책의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공익성의 제도화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한계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경제적 접근을 통한 공익성 이념의 정책적 해석과 실천방안의 도출이 대체로 미디어에 대해 도구적 관점에 입각한 ‘내용-경로중심적 사고(content-conduit-centered perspective)’에 기초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말할 나위 없이 정책 또는 정책논의는 정책과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갈등, 이들을 둘러싼 현실의 권력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화된 현실과 이념적 당위 간의 괴리를 피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김병진, 1995). 또 미디어 공익성을 현실정책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전환, 세계화라는 정치경제적 구조변화, 급격한 기술변화의 조건 등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용과 경로를 중시하는 미디어에 대한 도구적 관점과 함께 융합시대의 미디어를 둘러싼 현실상황의 긴급성 탓에 기능적 방도모색에 매몰되는 ‘도구적 이성’의 문제가 작동하고 있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논의의 한계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연구는 먼저 공익성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논의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내용-경로중심적 인식의 한계를 반성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미디어 생태학(media ecology)에 기초한 ‘미디어-환경개념(media-environment concept)’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미디어에 대한 이론적 해석의 한 부분으

로 발전되어온 미디어-환경 개념이 미디어 공익성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고, 향후의 연구과제 등을 제시하면서 논문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지금까지 미디어 생태학은 주로 미디어에 대한 인식론적 차원의 논의, 또는 미디어와 사회, 미디어의 역사적 전개과정 등과 같은 거시적 문제에 집중해오면서 미디어-환경개념이 가지고 있는 현실 정책의 함의를 상호연결해보는 작업은 주요한 관심사안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 연관고리를 찾고자 하는 이론적 모색의 하나로 생태적 관점에 입각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지적해두고자 한다.

2. 미디어의 활용과 전유: 기존 공익성 정책과 논의의 한계

나폴리(2001)는 미디어 공익성 논의를 ① 개념적 차원, ② 조작적 차원, ③ 실용적 차원의 서로 다른 그러나 밀접하게 연관된 층위에서 논의하고 있다(주정민, 2006). 그러나 어느 차원에서 논의하든 공익성 개념의 핵심은 미디어에 부여된 사회적 이익의 실현(예: 시청자/이용자 복지, 문화적 다양성, 공론장,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사회통합 등)이라는 도덕적 의무로 요약된다. 이에 기초해 내용/편성규제, 공영방송의 설치 및 운용, 소유/진입규제, 공정경쟁, 사회통합적 차원에서의 보편적 통신 서비스 제공 등이 미디어 공익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실천되고 있다.

말할 나위 없이 공익성 실천방안의 정책적 효용성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러한 비판에 대한 재비판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고급/하급문화적 구분과 차별의 문제, 교양장르 프로그램에 대한 편중적 가치부여의 문제(이영주, 2007; Ytreberg, 2002), 보편적 서비스 확대의 방식과 그에 따른 문제점(Sawhney, 2003), 신자유주의적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축소 주장에 대한 반론(김사승, 2007; 이남표, 2007; Ward, 2003) 등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미디어 공익성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미디어 산업과 정부 간의 타협의 산물이며, 보편적 서비스라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통신 사업자의 독과점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동원된 명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Hazlett, 2001; Sawhney, 2003).

그러나 본격적인 방통융합 시대로 접어드는 작금의 시점에서 더 중요하게 짚어야 할 문제는 미디어 공익성과 관련해 현실의 정책으로 제시되는 제도화 방안이 융합환경 이전과 이후에 서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미디어가 수준을 갖춘 내용을 전달하고 미디어에 대한 수(이)용자들의 평등한 접근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틀의 확립을 핵심으로 하는 공익성 정책논의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강태영, 2007; 김사승, 2007; 주정민, 2006; Baird, 1999; Bollier, 2002; Geller, 2003; McCauley, 2002; Myatt, 2005; Whittle, 2004). 다시 말하면 공익성과 관련한 정책논의의 초점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내용(media content)’의 측면에서, 그리고 ‘미디어 경로(media conduit)’의 측면에서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utilization)/전유(appropriation)하는 제도적 방안의 수립과 집행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Burgelman, 2000).

이 같은 정책이 미디어 공익성을 실천하는 데 요구되는 가장 일차적인 과제는 틀림없으며 이것이 가지는 의의는 결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미디어 공익성과 관련한 전통적 정책논의들이 미디어를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내용전달과 소통의 매개를 위한 유용한 도구, 또는 도구의 집합으로 간주하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디어를 도구적인 차원의 내용-경로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융합환경을 조성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오늘날의 미디어 상황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디어 과잉시대에 대체로 도구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는 내용-경로중심적 미디어 관점은 그 이상의 논의 진전에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도구적 관점의 첫 번째 문제는 역설적으로 수많은 형태의 새로운 미디어들이 등장하면 할수록, 공공적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또

제도적 강제가 아니더라도 시장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들이 스스로 문화적 다양성과 정보격차의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시장주의적 논리로 이어진다. 즉 더 많은 미디어는 경쟁의 논리에 따라 더 저렴한 비용 지불을 통해 더 많은 선택지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더욱 폭넓은 접근의 상황을 조성하기 때문에(Burgelman, 2000) 국가는 여기에서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미디어 공익성 정책이 “아날로그 방송 시대에 만들어진 정책적 사고와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Napoli, 2003, p.153)는 비판은 오히려 이런 맥락에서도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회적 목표가 정책적 수단을 통해 달성된다면 기존의 미디어 공익성 관련 정책논의는 그 이상으로 나아갈 논리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물론 정책목표의 완전한 달성이라는 상황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융합환경이 조성하고 있는 미디어 과잉의 상태가 사회와 개인에게 던지는 문제는(예: 자원의 낭비와 중복, 미디어 과소비, 미디어 중독, 수(이)용자 착취, 정보과부하, 문화적 오염 등등의 문제) 미디어 내용과 미디어 접근 차원의 것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이다. 미디어가 개인의 생활과 사회 전반에 침윤되면서 더욱 긴급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내용-경로중심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 공익성 관련 정책과 정책 논의가 답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미디어 공익성 관련 정책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유용한 미디어의 활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폭발적이고 공세적인 미디어의 발전과 확산이 가져오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비판적 개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과 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수많은 채널과 미디어 서비스 시대에 이러한 정책적 관점과 내용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Burgelman, 2000; Cuilenburg and McQuail, 2003).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금까지 논의했던 내용-경로중심적인 미디어에 대한 도구적 관점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대안의 시각을 모색하는 일이다. 여기에

서 이 연구는 미디어 생태학에 의거한 미디어-환경 개념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해보고, 그것이 공익성과 관련된 정책과 정책논의에 가지는 실천적 함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3. 미디어 생태학과 미디어 환경개념

미디어 생태학이라는 용어는 N. 포스트만이 최초로 쓰기 시작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미디어 생태학은 ‘미디어를 환경으로 간주하는 연구’를 지칭한다(Strate, 2002). 한편 이들의 연구를 미디어 이론(media theory)이라 명명하기도 하는데, 미디어 생태학은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병렬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Leverette, 2003). 미디어 생태학에서 말하는 미디어-환경이라는 개념은 이중적 의미를 가진 은유적 표현으로 첫째, 미디어가 사회의 구조와 성격을 결정하는 기제라는 의미와 둘째, 미디어가 말 그대로 생태환경적 기제라는 의미를 함께 품고 있다.

미디어가 사회의 총체적 구조와 성격을 결정하는 존재라는 시각은 “정보와 소통의 기술[즉, 미디어]이 인간의 인식과 행위를 조건 짓는 환경”(Heise, 2002, p.154)이라는 사고에서 출발한다. 기술결정론 또는 미디어 결정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널리 알려져 있는 W. 옹, E. 에이젠슈타인, M. 맥루한, J. 메이로비츠 등의 연구는 각각의 미디어(예: 구술-인쇄-영상-전자 미디어 등)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형태와 성격이 당대의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등의 기본적 구조와 내용을 결정한다는 미디어 생태학의 관점에 기초한 저작들이다(Zimmer, 2005).

한편 미디어가 생태환경적 기제라는 관점은 미디어를 개인과 집단의 삶의 터전을 구성하는 자연환경과 같은 의미의 ‘환경’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환경은 우선 기후, 풍토, 생물학적 인자들의 복합체로서 개별 유기체 또는 유기체의 집합에 작용, 궁극적으로는 그 생존의 형태, 나아가 생존 자체를 결정하는 체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본다

면 구조는 사실 환경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디어는 우선 그 자체로서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 미디어의 물질성(materiality of media) — 각종의 기기(예: 수상기, 전화기, 기지국, 전봇대 등의 네트워크 설비 등)이며 동시에 사람들 상호간의 소통행위나 사고방식 등을 일정하게 유도하거나 동시에 규제하는 상징적 차원의 환경도 — 미디어의 상징성(symbolic nature of media) — 구성한다.

미디어의 물질성이란 물리적 존재로서의 미디어가 사회의 실제 환경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하거나 개인과 집단의 행위나 사고 등을 일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TV나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의 미디어 기기가 주거 공간은 물론 업무공간의 배치와 구조를 바꾸는 요소가 되고 있고, 이동전화와 같은 개인휴대형 미디어 기기는 개인의 외양과 행위를 재구성하며, 옥외 전광판 같은 매체나 각종의 통신/방송 네트워크 설비(예: 전봇대, 전화, 케이블선, 기지국, 송신탑 등)들은 사회적으로 특정한 물리적 형태를 강제하는(예: 건물의 외양, 지역이나 도시의 가로 등의 지리적 양태) 차폐물 또는 장치물(surrounds)로 기능한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정보통신기술과 관련 기기/설비들이 주거단지, 지역, 도시 등의 구조와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익히 목도하고 있는 정황이다(주은우, 2004; 이유연, 2006; Gumpert and Drucker, 2005). 또 예고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미디어 시대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디어가 사회 전반에 촘촘히 들어서면서 하나의 통합적 관리체제로 연결되는 거대한 물리적 존재로 자리 잡게 될 것임을 예상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의 미디어 기기와 설비의 생산/설치/유통/소비/철거/폐기 등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환경오염의 문제는 미디어가 물리적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사실 미디어-정보통신 분야는 정보와 지식을 가치창출의 핵심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물리적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의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교통량 감소, 그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친환경 산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

이었다. 그러나 미디어 기기를 포함해 각종의 “전자제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와 정보통신 장비 폐기물의 증가, 그리고 제조과정에서의 유해 물질 배출 등의 환경 파괴적인 면도 존재”한다는 소위 ‘그린 IT’라는 문제의식이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대영, 2008).¹⁾

한편 물리적 환경의 (재)구성과 오염 등의 문제와 함께 미디어가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환경(semantic environment)도 동시에 조성하는 기제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각종의 미디어는 물리적 공간을 변경/재배치할 뿐 아니라 소통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물리적인 형태의 것이면서 동시에 그 같은 물질성을 넘어서는 존재”(Lefebvre, 2001, p.403)로 작용하고 있다. 미디어를 통한 담론공간(예: 공론장) 특정행위 또는 사고를 허용하거나, 권장하거나, 또는 금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나, 사이버 공간과 같은 물리적이면서 동시에 비물리적인 “새로운 현실을 만들면서 [미디어가] 미래와 현실을 재구성”(Floridi, 2001, p.1)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 등은 물질성을 넘어서는 존재로서 미디어가 조성하는 상징적 환경의 사례이다. 또 포스트만(1992)이 지적하듯이 “TV가 등장한 이후의 미국은 단순히 기존의 미국 사회에 TV라는 미디어가 추가된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TV는 미국의 정치, 가정, 학교, 교회, 산업 등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와 양태를(new coloration) 부가해주는 존재인 것이다”(18쪽). TV를 포함해 다른 미디어들이 그 양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1) 물리적 환경오염으로 말한다면, 각종의 전기/전자장비로 인한 쓰레기(예: 휴대전화나 노트북 컴퓨터용 카드롬 전지)의 양은 일반 쓰레기보다 3배나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Quinn, 2001). 또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과 같은 각종 미디어 단말기의 회수 및 재활용 방안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과 그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움직임 또한 점차 주목받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13차 UN 기후변화총회에서 채택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발리 로드맵과 관련, 각종 미디어 장비와 시설, 그리고 기기의 생산/설치/유통/소비/철거/폐기 등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향후 이에 대한 각국의 강제적인 환경규제 정책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아이뉴스24, 2008).

있겠지만 미국뿐 아니라 다른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상징적 함의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미디어-환경은 이처럼 각종 미디어 기기와 설비 자체의 물리적 편재성, 다양한 미디어에서 생산/유통되는 정보/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정보/콘텐츠의 사회적 효과와 영향력, 새로운 미디어 도입/확산에 연관된 정책당국의 공공정책과 개별기업들의 산업전략, 사용자 개개인들의 매체 접촉, 소비, 소통의 양식과 행위 등등과 같은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 조성된다. 이 같은 의미의 미디어-환경을 ‘자연의 생태환경(natural eco-system)’과 조응하는 차원에서 ‘문화적 생태환경(cultural eco-system)’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문화적 생태환경은 삶의 질과 연관된 사회 전체의 문화적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만이 문화적 생태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생태환경에는 미디어를 포함하는 문화적 인프라/플랫폼들(예: 도서관, 극장, 공연장, 화랑 등등과 같은 문화시설)과, 이들 시설을 관장하는 문화산업자(예: 방송사, 영화사, 출판사 등)와 문화정책 당국자(예: 문광부, 영진위, 방송위 등), 그리고 각종의 인프라/플랫폼 위에서 구현되는 문화행위자들에 의한 다종다양한 문화활동들이(예: 프로그램/콘텐츠) 수(이)용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구성하는 정서적/심미적/예술적 조건의 총체를 지칭한다. 이런 점에서 미디어가 문화적 생태환경의 유일한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가장 대중적인 기제라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미디어를 포함한 사회의 문화적 생태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구축되어 있는가에 따라 개인과 공동체가 특정한 공간(예: 주거, 지역, 도시, 국가 등) 내에서 이루는 삶의 내용/질서/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김우창, 1993). 다시 말하면 문화의 생태환경은 자연의 생태환경과 마찬가지로 개인/사회의 생존을 조건지우는 결정적 요체인 것이다. 미디어 공익성에 대한 논의는 본질적으로 “사회와 사회적 삶의 가치와 원칙,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의 종류”(Jakubowicz, 2004, p.98)에 대한 논의이다. 이런 점에서 미디어에 대한 생태적 관점은 미디어 공익성과 관련된 정책과

정책논의에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또 하나의 출발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4. 생태적 관점의 정책적 함의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미디어 생태학은 거시적 차원에서 미디어와 사회와의 관계, 미디어의 역사적 발전맥락, 또 미디어에 대한 인식론적 차원의 논의 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현실의 정책과 연관될 수 있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의미 있게 탐색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태적 관점에서 미디어를 바라보는 것은 미디어 공익성과 관련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함에 있어 정책의 철학적 기초와 내용, 실천적 기준과 주체 등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이를 더욱 확대·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의를 제공해준다.

우선 미디어-환경개념은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의 폭발적인 확대성장과 발맞추면서 지난 30여 년간 미디어 정책담론을 강하게 지배해오고 있는 기술적/경제적/산업적 가치창출에 초점을 둔 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해준다. 즉 미디어-환경개념은 미디어의 사회적 이익실현, 즉 공익적인 미디어 제도환경 구축의 핵심가치나 목표를 상징하는 철학적 토대로 전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술·경제·산업적 가치창출이라는 목표를 넘어 ‘문화적 생태환경의 제고’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줌으로써 미디어 정책과 정책논의에 확대된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이다(Sawhney, 1996). 또 미디어-환경개념은 그동안 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온 공익성 정책논의에 생태적 담론을 더해줌으로써 미디어 공익성과 관련된 비판적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또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미디어-환경개념은 다양성, 공정성, 문화 정체성, 지역성, 보편성 등과 같은 기존의 공익성 정책논리에 문화적 생태환경의 제고라는 실천목표를 또 하나 더 상징함으로써 관련 정책에 더욱 다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둘째, 미디어-환경개념은 공익성 실천을 위해 제기되는 여러 정책사안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판단의 기준점, 또 그에 부합하는 전략과 실천방안 마련의 추가적인 근거로 원용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융합시대 미디어 과잉상태가 제기하는 자원의 낭비와 중복, 미디어 과소비, 미디어 중독, 수(이)용자 착취, 정보과부하, 문화적 오염 등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정보환경의 파괴, 오염과 부패, 낭비와 폐쇄성”(Floridi, 2001, p.3, 강조는 원문)의 문제를 의미한다. 융합시대 미디어 상황에 대한 이 같은 생태적 차원의 문제의식은 각종 미디어의 도입과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집행, 관련 기업의 경영전략과 영업행태 그리고 서비스 기획, 내용과 수준을 갖춘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각급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교육의 주제와 내용, 수용자들의 미디어의 접속과 이용행태 등등과 연관된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수립과 집행에 개입하는 또 하나의 준거 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미디어에 대한 생태적 관점은 공익성 실천의 주체를 미디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로 — 정책당국자이든, 학자이든, 미디어 운동가이든, 또는 일반 사용자이든 — 확장할 수 있는 인식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통적인 논의에서 공익성 실천의 정책 메커니즘은 공동체의 대표기구인 국가가 정책을 통해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특정한 의무와 제한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익성 실천의 주체가 정부와 사업자로 제한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의 문제는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특정한 이해관계에 매몰됨으로써 빚어지는 결과적 비효율성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여타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공익성의 실천 메커니즘에서 배제시키거나 또는 수동적 위치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그러나 생태적 사고에서 인간은 주체적 결단과 시민적 개입을 통해 스스로의 환경을 유지/건설/개선하는 행동의 주체로 상정된다. 이 같은 관점에 입각한 미디어 인식은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의 연장선상에서 미디어 행위자 모두가 “사회의 문화적 설계에 책임을 지닌 시민”(Borgman, 1995, p.92), 즉 미디어의 틀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문화적 생태환경 형성의 책임자라는 인식론적 토대로 기능하는 것이다.²⁾

넷째, 미디어-환경개념은 미디어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도덕적 함의도 품고 있다. 기실 미디어는 물리적 환경의 문제와 함께 우리들 개개인의 시간, 돈, 관심, 공동체 내의 상호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각자의 내면세계까지 침투/착취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커다란 윤리적 파장을 가진 기술체제이다(ethically charged technology)(Floridi, 2001; Hassan, 1999). 생태적 관점은 기술에 대한 이 같은 윤리적 태도와 연결됨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반성의 계기를 제공해준다. 즉 미디어-환경개념은 미디어 정책과 미디어 수용 측면에서 ‘보다 많은 미디어’를 ‘보다 나은 미디어’와 동일시하지 않도록 하는 성장적·저항적 관점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술적 시민의식(technological citizenship)’(Winner, 1995)으로 이어지면서 개인과 사회 전체가 미디어, 또는 미디어 기술의 포로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또 오늘날과 같은 기술지배적 공간 속에서도 다른 방식의 삶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등을 함께 인식토록 해주는 것이다(Radovan, 2001). 미디어에 부과된 공익성이라는 이름의 도덕적 의무 역시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사고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디어-환경개념은 이를 더욱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미디어-환경개념은 미디어/정보통신 산업계나 정책수립/집행과정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들에게 팽배해 있는 성장과 개발위주의 패러다임에 대해 문화적 생태환경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미디어와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획득케 해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각종의 미디어와 관련 기술의 발전이 인간과 사회문화의 진보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더 이상 새로운 주장이 아니며, 새로운 미디어가 이전의 미디어보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선된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없음은 물론이

2) 이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대안 미디어 운동(alternative media movement)의 가장 본질적인 철학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디어 환경의 시민적 재구성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는 2008년 5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문화제 등에서 참가자들이 주체적으로 동원/활용하는 미디어들이 기존 미디어의 권력구조, 나아가 사회 전반의 소통구조와 성격을 변화시키는 단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 충분한 사회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가 정책적 오류로 인해 문화적 생태환경을 오염 —“상징적 의미환경의 오염”(pollution of our semantic environment)(Gencarelli, 2006, p.209) —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역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풍성한 미디어, 빈곤한 민주주의’(McChesney, 1999)라는 역설이 보여주듯이 사람/정치/사회/문화는 소위 풍성한 미디어와 정보의 시대에 오히려 더 궁핍해질 수 있으며 생태론적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역설에 주목케 하면서 미디어 기술발전과 관련한 정책과 사고의 방향 자체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Robins and Webster, 1999; Simpson, 1995). 이런 점에서 미디어에 대한 환경론적 사고는 기존의 미디어 공익성 관련 논의가 가지고 있는 산업론과 대비되는 차원의 문제의식을 넘어 (탈)근대 사회의 기술질서/체제에 대한 통렬한 철학적 도전의 의미도 품고 있다(Goldblatt, 1996; Postman, 1992).

5. 결론

이 연구의 기본취지는 미디어 공익성을 현실의 마당에서 구현하기 위해 제시되고 실천되는 각종의 미디어 정책과 정책논의가 기초하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내용-경로중심적 사고의 한계를 짚어보면서, 생태환경적 관점이 오늘날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미디어 정책, 특히 공익성과 관련한 정책논의의 기초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것이 현실 정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실천적 함의 등을 살펴본 것이다.

미디어-환경개념에 기초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미디어에 부여된 공익성을 실천하는 정책의 근본적 목표는 “삶의 양식의 왜곡으로서의 문화적 재난”(심광현, 2003, 230쪽)을 지양하면서 사회의 문화적 생태환경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풍요로운 문화적 생태환경이란 “국민 다수가 문화적 향유와 표현의 역량을 갖추고 자유롭고 풍부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문화환경과 법제가 적절하게

재구성된 상태, 따라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심광현, 2003, 237쪽).

미디어 공익성과 관련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미디어와 연관된 사회적, 문화적, 정치경제적 조건들에 개입함으로써 보다 나은 개인적/사회적 삶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가 공동체를 의미하는 라틴어 ‘코뮤니타스(communitas)’에서 기원하고 있다는 것도 이런 점에서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미디어 공익성에 대한 논의가 본질적으로 사회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논의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Jakubowicz, 2004).

그러나 융합환경이 조성하는 미디어 과잉 시대에 접어들면서 공익성이라는 개념은 산업-이데올로기-기술이 강요하는 소용돌이에 의해 가려지고 주변화 되어 가고 있다. 공익성 철학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념적 추동력은 “정부 주도의 공공정책이 점차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되면서 악화되고 있는 한편,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은 아직 그 틀을 잡지 못한 채 대중적 지지를 확보한 정통성 있고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Bollier, 2002, p.26)과 맞물리면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소위 탈근대라는 사회적 조건에서 “공공성(publicness)이라는 철학이 그 힘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적 상황”(Featherstone and Burrows, 1995, p.13)과 또한 얽혀있다는 점이다. 이즈음에 미디어 공익성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정책논의의 인식론적 토대를 포괄하면서 이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접근과 사고가 절실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미디어 생태학에 기초한 미디어-환경개념은 미디어 공익성 관련 논의를 보완하면서 더욱 확대·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상위의 이념으로서 미디어 공익성이 융합시대라고 해서 달라질 수는 없다. 다만 그 철학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실천목표와 방안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듯 미디어에 대한 시각 역시 융합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내용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이 연구는 새로운 출발선을 모색해

보는 탐색적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디어-환경개념을 공익성의 제도화라는 현실정책의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과 적용 및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등의 후속과제가 진전되면서 논의의 내용이 더욱 보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참고문헌

- 강내희 (2006). 가없는 미디어매트릭스? 『문화과학』, 48호, 13~34.
- 강태영 (2007). 새로운 텔레비전 서비스와 공익성 개념의 변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1호, 5~38.
- 김병진 (1995). 『정책학 개론』. 서울: 박영사
- 김사승 (2007). 디지털 다매체 시대 공영방송의 철학과 이념.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하계워크숍 자료집, 49~77.
- 김우창 (1993). 『이성적 사회를 향하여』. 서울: 민음사.
- 김택환 (2005). 『미디어 빅뱅』. 서울: 박영출판사.
- 심광현 (2003). 위험사회를 넘어 문화사회로: 참여정부 문화비전 중장기 과제와 전망. 『문화과학』, 36호, 229~247.
- 아이뉴스24 (2007.12.31~2008.1.6). 이제 그린 IT다.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04477&g_menu=020200
[080109]
- 이남표 (2007). 미디어 융합의 시장자유주의적 이해에 대한 비판: 방송과 통신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하계워크숍 자료집, 3~24.
- 이대영 (2008. 2). 온실가스 배출 산업인 IT, 해결책 ‘급선무’. 『월간 온더넷』. <http://www.ionthenet.co.kr/newspaper/view.php?id=12748>.
- 이영주 (2007). 방송공공성에 대한 사유와 실천: 네트워크 미디어 환경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하계워크숍 자료집, 24~45.
- 이유연 (2006). 가로공간의 이미지 실천과 가로경험의 공공성: 도심 옥외 미디어의 재현성의 확장과 관련하여. 『문화과학』, 48호, 117~131.
- 주은우 (2004). 스펙터클과 시선의 도시공간. 『문화과학』, 39호, 13~40.

- 주정민 (2006).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공익성. 『한국언론정보학보』, 36호, 109~134.
- 최영목 (1997). 『방송 공익성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Aufderheide, P. (1999). *Communications policy and the public interest*. NY: The Guilford Press.
- Baird, Z. (1999). *Improving life in the information age*. Washington DC: Markle Foundation.
- Bardoel, J. and d'Haenens, L. (2004). Media meet the citizen: Beyond market mechanisms and government regulation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9(2), 165~194.
- Baudrillard, J. (1983). The ecstasy of communication. In H. Foster (Ed.),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pp.126~134). NY: The New Press.
- Berman, S. et al. (2006). *The end of television as we know it: A future industry perspective*. NY: IBM.
- Blumler, J. (Ed.) (1992). *Television and the public interest*. London: Sage.
- Bollier, D. (2002). *In dearch of the public interest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Washington DC: The Aspen Institute.
- Borgman, A. (1995). The moral significance of the material culture. In A. Feenberg and A. Hannay (Eds.), *Technology & the Politics of Knowledge*. (pp.85~96).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Braman, S. (2004). Where has media policy gone? Defining the field in the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9(2), 153~182.
- Burgelman, J. (2000). Regulating access in the information society. *New Media & Society*, 2(1), 51~66.
- Cuilenburg, J. and McQuail, D. (2003). Media policy paradigm shifts: Towards a new communications policy paradigm.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8(2), 181~207.
- Debord, G. (1983). *Society of the spectacle*. Detroit: Black & Red.
- Featherstone, M. and Burrows, R. (1995). Cultures of technological embodiment: Introduction. In M. Featherstone and R. Burrows (Eds.). *Cyberspace/cyber-*

bodies/cyberpunk (pp.1~19). London: Sage.

Floridi, L. (2001). Information ethics: An environmental approach to the digital divide.

Philosophy in the Contemporary World, 9(1), 1~7.

Galperin, H. (2004). Beyond interests, ideas, and technology: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policy. *The Information Society*, 20, 159~168.

Geller, H. (2003). Promoting the public interest in the digital era.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55(3), 515~520.

Gencarelli, T. (2006). Neil Postman and the rise of media ecology. In C. Lum (Ed.), *Perspectives on culture,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pp.201~253). Creskill, NJ: Hampton Press.

Gitlin, T. (2002). *Media unlimited*. NY: Henry Holt & Co.

Goldblatt, D. (1996). *Social theory and the environment*. NY: Polity Press.

Gumpert, G. and Drucker, S. (2003).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ideal of sustainability. *Intermedia*, 31(4/5), 14~18.

_____ (2005). Communication and urban life. *Intermedia*, 33(2), 18~23.

Hassan, R. (1999). Globaliz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culture within the space economy of late capitalism. *Information, Culture & Society*, 2(3), 300~317.

Hazlett, T. (2001). The wireless craze, the unlimited bandwidth myth, the spectrum auction faus pas and the punchline to Ronald Coase's' big joke. Working paper 01-02. AEI-Brookings Joint Center for Regulatory Studies. Washington DC: AEI.

Heise, U. (2002). Unnatural ecologies: The metaphor of the environment in media theory. *Configurations*, 10(1), 149~168.

Jakubowicz, K. (2004). Public broadcasting service in enlarging Europe: Serving the cultural communities. In D. Ward (Ed.). *The key role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Europe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060425] http://www.cmpd.eu.com/reports/psb_europe_21century.pdf

Lefebvre, H. (1974/2001). *The Production of space*. tr. by D. Nicholson-Smith. Oxford: Blackwell.

Leverette, M. (2003). Towards an ecology of understanding: Semiotics, medium theory,

and the uses of meaning. *Image & Narrative*, 6. [071217]

<http://www.imageandnarrative.be/mediumtheory/marclerverette.htm>

McCarthy, D. (1996). *Knowledge as culture*. London: Routledge.

McCauley, M. (2002). The contested meaning of public service in American television. *The Communication Review*, 5, 207~237.

McChesney, R. (1999). *Rich media, poor democracy: Communication politics in dubious times*.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Meyrowitz, J. (1985). *No sense of place*. NY: The Oxford University Press.

Mulgan, G. (1991). *Control and communication: Networks and the new economy of communication*. NY: Polity Press.

Myatt, A. (2005). *Report on the public media caucus*. San Francisco: Center for Digital Democracy.

Napoli, P. (2001). *Foundations of communications policy: Principles and process in the regulation of electronic media*. Creskill, NJ: Hampton Press.

Napoli, P. (2003). The public interest obligations initiative: Lost in the digital television shuffl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7(1), 153~56.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1996). *The unpredictable certainty: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rough 2000*. Washington DC: NRC.

Postman, N. (1992). *Technopoly*. NY: Vintage Books.

Quinn, S. (2001). ICT and the environment. *Intermedia*, 29(4), 30~32.

Radovan, M. (2001).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character of contemporary life.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ociety*, 4(2), 230~246.

Robins, K. and Webster, F. (1989). Cybernetic capitalism: Information, technology, everyday life. In V. Mosco and J. Wasko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information* (pp.44~75).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_____ (1999). *Times of the technoculture*. London: Routledge.

Sawhney, H. (1996). Information superhighway: Metaphors as midwives. *Media, Culture & Society*, 18(2), 291~314.

_____ (2003). Universal service expansion: Two perspectives. *The information society*, 19, 327~332.

Simpson, L. (1995). *Technology, time and the conversations of modernity*. London: Routledge

- Strate, L. (2002). Media ecology as a scholarly activity. President's address. Third annual convention of the Media Ecology Association. Marymount Manhattan College. June 21-3.
- Ward, D. (2003). State aid or band aid? An evalua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s approach to public service broadcasting. *Media, Culture & Society*, 25(2), 233~250.
- Whittle, S. (2004).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the new media age: The BBC's experiences. *Trends in Communication*, 12(1), 3~13.
- Winner, L. (1989). *The whale and the reactor-A search for limits in an age of high techn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95). Citizen virtues in a technological order. In A. Feenberg and A. Hannay (Eds.). *Technology & the politics of knowledge* (pp.65~84),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Ytreberg, E. (2002). Ideal types in public service television: Paternalists and bureaucrats, charismatics and avant gardists. *Media, Culture & Society*, 24(6), 759~774.
- Zimmer, M. (2005). Media ecology and value sensitive design: a combined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biases of media technology. Proceedings of the Media Ecology Association. 6.

(투고일자: 2008.05.29, 수정일자: 2008.07.10, 게재확정일자: 2008.07.21)

A Concept of Media–Environmen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Policy Discussions Concerning the Public Interest Idea

Pyung–Ho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Broadcasting and Multimedia, Dankook University)

The convergence of media poses serious challenges to technologies, industries and policy makers. At the core of the challenges lies a socially and culturally problematic condition of ‘media unlimited.’ Under the circumstances, the idea of public interest of the media seems to lose its intervening leverage as it flounders in countering ‘the media torrent’ rushing from the exponential growth of ICTs that overwhelms contemporary life and society. It is an urgent task for the critical community to blaze fresh new thoughts about the idea to intervene in the current age of media excess. Beyond the conventional content-conduit-centered perspective on the media, this study suggests a media-environment concept based on media ecology as an engaging leverage to replenish the public interest idea. The environmental approach to the media means literally to conceptualize the media as environment--a cultural eco-system. This study explores the potential of ecological approach in enriching the conceptual terrain of policy discussions and policy-making processes concerning the public interest idea that hopefully enlightens all the media actors concerned.

Key words: convergence, cultural eco-system, media ecology, media excess, media policy, public interest idea